

외상의 질곡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삶의 경험

How have They Grown Up from the Post-traumatic Pain State?

:Life Experience of an Elderly Woman Victim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김문자*, 김학주**, 임해영***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Moon-Ja Kim(kmj0549@naver.com)*, Hak-Ju Kim(drlionking@hanmail.net)**,
Hae-Young Lim(hae0629@hanmail.net)***

외상의 질곡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삶의 경험

How have They Grown Up from the Post-traumatic Pain State?
:Life Experience of an Elderly Woman Victim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김문자*, 김학주**, 임해영***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Moon-Ja Kim(kmj0549@naver.com)*, Hak-Ju Kim(drionking@hanmail.net)**,
Hae-Young Lim(hae0629@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이 피해 이후 삶에서 외상 후 성장의 주요 의미를 드러내 줌으로써, 국내에 소수 생존해 있는 이 여성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5명의 삶의 영역을 Elo와 Kygäs(2008)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삶의 과정은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 영역은 '일본군 '위안부'로부터 벗어난 삶', '인생 말년에 시작한 여성인권가로서의 삶'이다. 이를 통해, '실패한 결혼생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 '살 이유가 된 소소한 행복도 존재', '수십 년이 지나서야 털어놓은 엄청난 비밀',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 '말년이 되어서야 들어선 치유의 길', '세계 여성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활동가의 삶', '의로운 기부자의 삶', '후세대와 의 교류와 공감', '말년에 이루어낸 인생 보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반복되는 트라우마의 상흔', '해야만 될 내 인생의 숙업'이란 총 12가지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외상 후 성장을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몇가지 논의점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일본군 '위안부' | 여성 인권 | 외상 후 성장 | 질적 내용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main meaning of post-traumatic growth in the lives of elderly women who wer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o obtain practical implications on how social support for these elderly women who survive in Korea is possibl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life areas of five elderly women who wer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ccording to the step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uggested by Elo and Kygäs (200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ife process of the elderly women who wer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ould be divided into two areas. Its domains are 'a life freed from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a life as a women's rights activist who started at the end of her life'. Through this, 'a failed marriage', 'a life that was rushed to live', 'there are small happinesses that became a reason to live', 'a great secret that was revealed only after several decades', 'awareness that I am not a shameful being', 'The path of healing that has only begun in my later years', 'The life of an activist who takes the lead in protecting women's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The life of a righteous donor', 'Exchange and empathy with future generations', 'The reward of life achieved in the last years', 'Dozens A total of 12 sub-themes were derived, such as 'the scars of trauma that are repeated over the years' and 'the work of my life that has to be don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some discussion points were suggested that can socially support the post-traumatic growth of elderly women who wer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keyword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Women's Right | Post-traumatic Growth |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접수일자 : 2022년 11월 10일

수정일자 : 2022년 1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22년 12월 05일

교신저자 : 임해영, e-mail : hae0629@hanmail.net

I. 문제제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40~5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숨죽여 살아왔다. 그러다 1991년 (고)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시발점이 되면서, 성적 노예로 살아온 자신들의 한 맺힌 삶을 UN과 같은 국제기구 혹은 국제 법정 등에서 증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 대사관 앞의 수요 집회를 인권운동 차원에서 30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1]. 이를 통해 일본이 당시의 조선의 소녀들을 강제로 혹은 속여서 성적 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숙(2013)은 이 할머니들을 국가가 조금씩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1]. 이로 인해 일본의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에 대한 정당한 사과와 국가적 배상은 오늘날 후세대들의 정확한 역사인식과 인권인식 속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수행된 국내 연구들은 '위안부' 피해 여성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와 과제에 관한 연구[2], '위안부' 여성을 다룬 문학 작품이 드러내는 서사에 관한 연구[3], '위안부' 피해 여성 담론에 관한 연구[4],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정치사회적 운동에 관한 연구[5],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생애사 연구[6]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리고 위 연구들은 주로 이 여성들의 피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의 의미, 피해자가 배상받을 권리, '위안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여성들에게 형성된 시기별 담론의 의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전쟁과 성폭력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존재, 개인 차원이 아닌 민족 차원의 피해를 입은 여성 집단 등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안부' 여성들의 생애사를 분석한 연구들은 이 여성들이 역사적 유래가 없는 여성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적 사회의 족쇄로 일생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존재, 일본군 '위안부' 시절 몸과 성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를 형성한 존재, 일본의 사죄 및 배상과 정부의 적극적 외교가 절실한 상황[6]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으로서 삶과, 이후 이 여성들이 스스로 '위안부'임을 밝히고 인권운동에 참여한 노년의 삶을 상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로서 당해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의 삶에 연구의 중점을 두다 보니, 극단적 피해 이후의 삶속에서 이 피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을 향해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

Bonanno(2004)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외상 후 성장이란 극단적 스트레스 이후 경험되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의 한 측면으로서, 내적 분열과 상실의 감정으로부터 갱생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7].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이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삶 그리고 스스로 '위안부'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권활동가로서 참여한 노년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외상 후 성장의 주요한 맥락적 의미를 당사자들의 언어를 통해 드러내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 노인의 삶의 전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이란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회 현상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또한 질적 내용분석은 서면화 된 구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 범주들을 도출하고, 제시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8].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 노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이것을 구술증언 자료 형태로 출간한 기존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외상 후 성장을 향해가는 경험의 주요 의미를 드러내 줌으로써, 국내에 소수 생존해 있는 이 여성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II. 문헌 검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정신대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용어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연구, 지원하는 단체명이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성노예'라는 용어가 이 두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9]. 그렇지만 '위안부'라는 용어가 당시 일본군이 붙인 이름으로서 집권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 용어이면서 피해자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연구자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에 따옴표를 붙여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이 이 용어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제도화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잘 전달해준다는 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피해 여성들이 '성노예'라는 용어에 대해 섬뜩하게 여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안부'라는 용어가 현재는 통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0].

한편,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 여성들의 규모는 김일면(1976)의 경우, 17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시아여성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1942~45년 3년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로 징집된 아시아 여성의 수를 10만~2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치를 통해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아시아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징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의 80% 이상이 조선인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적어도 15만명 내외의 조선인 여성이 일본의 식민지 전쟁에서 성적 노예로 그리고 성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당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에 징집된 여성들의 나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 170명의 증언에 입각하여 조사한 결과, 14~19세의 연령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8]". 그중에

서도 16~17세 연령의 여성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따라서 당시 대규모의 조선의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징집되어, 전시 하의 성적 노예로 반인륜적 전쟁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보편인권의 세계사적 결정체인 유엔 「세계인권선언문」(1948)은 전문에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자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점으로 보편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 실천을 펼쳐나가고 있다[12]. 그러나 인권은 국가와 사회를 통해 실현되어 간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시대에는 성폭력 피해조차도 '정조에 관한 죄'로 이해되었고, 피해 여성들에게만 사회적 낙인이 부과되어 배제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재했던 시대를 거쳐 오면서[13],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처참한 인권 유린의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다. 특히 국가를 빼앗긴 조선의 소녀들에게 '위안부'의 삶은 더 심각한 고통과 인권침해를 야기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지환[14]은 전쟁 희생자의 대부분은 민간인, 그것도 여자와 아동이 80~90%를 차지하며, 이들에게 성폭력 전략이 심각하게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쟁 시에 가장 취약한 일차적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호소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15]. 이러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대의 전시 하 성폭력 문제의 역사적 뿌리로서, 국제사회의 인식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14]. 우리나라의 경우, 정대협이 공식 사죄와 사실 인정, 진상규명, 법적배상, 위령과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고,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수요시위를 시작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문제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12].

이로 인해 도시환[16] 연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서, 인권중심 사고로의 법리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 일본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의 법리 역시 정의 구현을 향한 소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정립해야 한다는 것,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적극적 평화주의(positive peace)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16]. 또한 국내 법원에서도 '위안부'는 전시 하 성폭력, 강제동원, 인신매매가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서, 향후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등을 위한 과제로서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사왜곡 대책마련,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지속적인 국제 교류 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17].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인권 문제는 전시 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노예화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상 후 성장

최근 들어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폭력과 범죄 피해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상(trauma)은 그리스어로 '상처'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트라우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되지 않고 피해자의 기억 깊숙이 새겨져 장기적으로 고통당하는 경향이 있다[18].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후 성장을 각종 재난, 범죄, 전쟁, 폭력, 죽음의 목도 등 극도의 괴로움을 야기하는 외상사건에 대한 분투의 결과로 긍정적 심리변화를 야기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22]. 여기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변화란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적 사건과 직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의 직면은 부정적인 사건에 맞설 수 있는 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 삶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19].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성장[20], 역사적 트라우마 치료[21]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관련된 국내 기존 연구들은 식민지 전쟁에서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유린당한 트라우마적 경험에 대해서 주로 연구의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일본군 '위

안부' 피해 여성 당사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들이 일본군의 성적 도구로 전락한 인권유린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여성들이 극도의 트라우마적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이 외상으로부터 성장해 가는가를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의 생애 경험을 분석함에 있어, 이들이 '위안부'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인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당사자로서의 자신의 삶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의미의 맥락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 분석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내용분석

최성호 외[23]는 "질적 내용분석이란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류 방법인 코딩 과정을 통해 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밝히는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질적 내용분석은 분석할 수 있는 서면화 된 발간 자료라면 모두 분석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귀납적, 연역적 접근 방법을 통해, 연구 현상에 대한 핵심 주제와 주제 간 패턴을 발견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lo와 Kyngäs[24]는 귀납적 내용분석의 경우,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더 적합하고, 사전지식이 충분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역적 접근의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lo와 Kyngäs[24]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적 절차는 준비, 조직화, 보고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Elo와 Kyngäs[24]가 제시한 귀납적 내용분석의 방법적 절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삶을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대부분이 90대 이상 후기 고령기 여성 노인들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면담방법보다 기존에 출간된 구술증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

해 여성 노인의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국내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 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사전적 지식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Elo와 Kyngäs[24]가 제안한 질적 내용분석의 귀납적 절차 방법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과 분석

1) 자료수집

Elo et al[24]은 준비 단계에서 연구자가 검토해야 할 점검 사항에 대해 자료수집과 표본추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가장 적합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가 핵심적 질문 사항이 된다. 표본추출 단계에서는 이 연구를 위한 가장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은 무엇인가, 참여자 선정에 사용할 기준은 무엇인가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표본선정을 위한 모집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이다. 2021년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은 총 240명이다. 이중 225명이 사망하였고, 2021년 2월 기준 15명의 여성 노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해 여성 노인의 평균 연령은 92세로 나타나고 있다[16]. 이 점에서 본 연구의 모집단은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240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 연구는 5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을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 선정 기준은 아래 3가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첫째, 2021년 2월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이 15명이므로, 이들이 고연령의 여성 노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직접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본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2021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이 연구는 기출간된 서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 수행방법으로 좀 더 적절할 것이다. 둘째, 기출간된 서면화 된 자료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이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고, 이후 여성인권 활동가로서 각종 집회, 증언회에 참여하게 된 삶을 구술증언 한 자

료가 본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셋째, 기출간된 자료의 저자의 시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혹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된 경우, 본 연구의 수집 자료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적 논란 혹은 논쟁 사항으로 지목된 구술증언 자료의 경우, 저자의 특정한 시각적 편향성[25]이 그 자료에 더욱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국내 대표 검색 시스템인 국회도서관 포털에서 '일본군 위안부'란 용어로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6월 현재 1,579편이 확인되었다[26]. 이 중 도서자료 339편, 웹자료 264편, 총 623편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자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구술 증언 관련 자료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권주리에[27][29-32]가 저술한 강일출, 김원옥, 김복동, 이옥선,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구술 증언 내용을 토대로 출간된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위 5편의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위 자료에 선정된 5명의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은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분이며, 기 자료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드러내는 구술을 기록하는데 특정한 시각적 편향성이나 논쟁으로 인해 이슈화되지 않은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저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인권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삶의 내용들을 구술증언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질적 내용 분석자료 및 참고 자료 목록

제목	발간일	저자 및 출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강일출 : 영화 귀향의 모티브	2018	권주리에/북코리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원옥 : 다시 가지 못한 고향 평양	2018	권주리에/북코리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복동 : 기부 천사	2018	권주리에/북코리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이용수 : 아이 캔 스피크의 주인공	2018	권주리에/북코리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이옥선 : 만두 한 개	2018	권주리에/북코리아

2) 자료 분석

Elo와 Kyngäs[24]의 질적 내용분석의 첫 과정은 준비 단계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의 분석단위와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며, 분석할 자료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이 '위안부' 여성으로 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삶, '위안부' 생활이 끝난 이후 등의 격동적 삶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읽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노인의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로부터, 벗어난 이후의 삶, 인권운동에 참여하게 된 노년의 삶 2가지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조직화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개념과 범주화 작업이 수행된다. Elo et al[20]은 조직화 단계에서 연구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범주화, 자료 해석, 대표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화 단계에서 범주화와 추상화를 위해 분석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의미한 의미들을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개념으로 도출될 만한 문구, 문장 등을 코드화하였다. 이렇게 코드화된 문구, 문장 등을 사례별로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명명된 개념들은 사례 별 지속적 비교를 통해 하위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하위 범주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공통적 특성을 내포한 하위 주제들을 이 연구가 설정한 2가지 삶의 영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자료 해석의 정도는 본 논문에 대한 조언에 참여한 사회복지학, 가족학 전문 연구자 2인을 통해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표성은 다음 절에서 제시할 본 연구의 엄격성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세 번째, 보고단계는 조직화 단계에서 도출한 범주가 연구결과로서 충분히 기술하고 있는지, 제시된 연구결과가 연구의 진실성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lo et al(2014)은 질적 내용분석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자의 비판적 자기 성찰(self criticism)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고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본 연구

조언에 참여한 전문 연구자들을 통해 점검받았다.

3.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의 엄격성에 대한 대표 연구자 Lincoln과 Guba[28]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서 신용성(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ability), 확실성(confirm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Lincoln과 Guba[28]의 질적 연구 타당성을 보증하기 위한 4가지 방법적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용성은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는 신용성 확보를 위해서 2020년 11월에 연구 주제를 확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삶과 이들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문헌,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지속적으로 읽고 숙고하였다. 또한 이들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뉴스기사, 시사다큐 등을 검토하면서 신용성 중 장기간 참여 및 지속적 관찰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동료 검증은 이 연구의 결과를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동료연구자들의 점검과 조언을 받았다. 다음으로 전이성은 심층적 기술(thick discription)로, 가능한 연구결과를 깊이있게 자세한 묘사를 통해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이성은 이 연구의 결과 제시 시, 도출된 개념, 하위주제에 대한 단편적이고 표면적 기술보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술을 풍부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의존성은 신용성의 재검증 과정으로서, 신용성에서 제시한 기술적 방법들을 다시 한번 재검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각검증과 동료검증 등의 다양한 검증방법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존성은 신용성에서 제시한 다양한 참고자료 활용 및 동료 연구자 검증 이외에,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검증을 첨가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실성은 연구자의 자기 인식과 반성이 드러날 수 있는 반성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확실성을 위해서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자기 인식과 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제 영역 목록과 내용 기술

1) 주제 영역 목록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5명의 삶의 영역을 Elo와 Kygäs[24]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삶의 과정은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 영역은 '일본군 '위안부'로부터 벗어난 삶', '인생 말년에 시작한 여성인권가로서의 삶'이다. 이를 통해, 전자에서는 '실패한 결혼생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 '살 이유가 된 소소한 행복도 존재', '수십 년이 지나서야 털어놓은 엄청난 비밀'이란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후자에서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 '말년이 되어서야 들어선 치유의 길', '세계 여성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활동가의 삶', '의로운 기부자의 삶', '후세대와의 교류와 공감', '말년에 이루어낸 인생 보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반복되는 트라우마의 상흔', '해야만 될 내 인생의 숙업'이란 8가지 하위 주제가 도출하였다. 그것을 제시하면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일본군 '위안부' 여성 노인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주제 목록

주제 영역	하위 주제	개념
일본군 '위안부'로부터 벗어난 삶	실패한 결혼 생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은 남편의 배신으로 세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함(강일출 편, p.191) -자식도 낳지도 못했고, 외도로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과 4년 살고 헤어짐(김복동 편, p.119) - 10년 세월을 기다렸지만 다른 여자와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고 있는 첫 남편의 배신(이옥선 편, p.191) - 술집에서 벗어나고자 강매의 재취로 들어갔지만, 몇 년 살다 도망쳐 나옴(김원옥 편, pp.193-195)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	-아이 셋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내 인생(강일출 편, p.193) -생계를 위해 이일, 저일 하면서 살아온 힘겨웠던 인생(김복동 편, p.123) -참전한 첫 남편을 대신해 10년 동안 시부모 봉양하며 남편을 기다리며 산 삶(이옥선 편, pp.187-189) -망가진 몸으로 결혼 생각조차 못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온 인생(이용수 편, p.201)
	살 이유가 된 소소한 행복도 존재	-인물 좋은 한족 남편을 만나, 단꿈 같은 신혼생활도 보내봄(강일출 편, p.189) -중국 결혼 생활 속에서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독독함 덕분에 여러 일을 겸직도 함(이옥선 편, p.167) -사랑으로 키운 아들 결혼시켜 며느리와 손주들

인생 말년에 시작한 여성인권가로서의 삶		보고 산 내 인생(이옥선 편, p.199) -아이 못 낳는 귀한 선물로 찾아온 입양한 아들의 양육(김원옥 편, pp.199-201)
	수십 년이 지나서야 털어놓은 엄청난 비밀	-7년간 짐승처럼 학대당했던 수십 년 전의 내 삶을 도저히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어 결국 신고하게 됨(김복동 편, p.123) -방송국 사람들에게 중국 땅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로 내 피해사실을 알림(이옥선 편, p.207)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위안부' 보상금 가지고 많이 많은 TV내용에 연접아하는 나를 추궁하는 며느리로 인해, 수십 년 간 숨겨온 비밀을 며느리와 목사아들에게 털어놓음(김원옥 편, p.207)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일본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됨(이옥선 편, p.79) -가해자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김원옥 편, p.43) -여성인권에 논뜨면서 비로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함(김원옥 편, p.171)
	말년이 되어서야 치유의 길로 들어섬	-7년간의 사설 생활 속에서 참여한 그림그리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함(김복동 편, p.129) -인생 말년기에 느꼈던 여성인권이란 선물(김복동 편, p.125) -원에 프로그램 안에서 오랜 상처가 조금 아무는 것도 같음(김원옥 편, p.77)
	세계 여성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활동가의 삶	-오늘날에도 나와 같은 비극을 겪은 피해 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세계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기로 함(김복동 편, p.193)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세계 분쟁지역 여성의 인권유린은 '위안부'인 자신들로 끝나야 함(김원옥 편, p.67) -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찾아, 우리 잘못이 아니라 국가 잘못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음(김원옥 편, p.93) -문 대통령을 2번이나 방문하여 '위안부' 문제해결을 다시 간절히 부탁함(이용수, 편, p.95)
	의로운 기부자의 삶	-평생 모은 삼짋돈을 전쟁지역 피해 어린이와 평화활동가 양성을 위해 기금으로 내놓음(김복동 편, p.185) -초롱초롱한 농망울을 가진 일본 내 조선 초등학교 손주들에게 산타클로스처럼 선물도 보냄(김복동 편, p.167) -복동할때와 함께 만든 나비기금이 날개가 되어, 세계여성에게 날아가길 희망함(김원옥 편, p.47)
말년에 이루어낸 인생 보람	후세대와의 교류와 공감	-귀향이란 영화를 보는 전 세계에서 온 대학생들의 훌쩍임과 탄식의 소리에서 보편적 인류애를 느낌(강일출 편, p. 85) -내 인생의 상흔을 아파하는 어린 후배들을 오히려 위로함(강일출 편, p.33) -살뜰히 보살펴 주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행복한 쉼터 생활(김복동 편, p.151) -수요 집회에 참여한 후세대에 대한 고마움(김원옥 편, p.25) -이화여고 품망한 고등학생 소녀들에게 증언하러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음(김원옥 편, p.145) -대학생들이 한품 한품 모아온 성금과 조각가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대학 내 소녀상이 고마움(이용수 편, p.79)
		-내 생애사를 담은 책 표지에 넣을 내 이름을 직접 써보기도 함(강일출 편, p.59)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대표하여 받은 여성 대상이라 기쁘기 그지없음(김복동 편, p.177) -89살 나이에 젊었을 적 꿈인 가수로 데뷔한 사랑은 나뉘어 없을 것임(김원옥 편, p.51) -일본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 말년의 나이에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함(이용수 편, p.147) - 오래기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알리면서 나

		와 관련된 영화, 책이 나옴(이용수 편, p.55)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반복되는 트라우마의 상흔		-트라우마적 고통이 오버랩되기도 하는 일본 증언회(강일출 편, p.103) -일본 땅에 와서 되살아나는 수십 년 전의 끔찍한 과거 악몽의 상흔(이옥선 편, p.133) -깊은 상처가 연상될 수 있는 작은 증후만으로도 되살아나는 트라우마의 고통(길원옥 편, p.83)
해야만 될 내 인생의 숙업		-UN 본부 앞에서 일본의 공식 사죄와 정당한 배상 이행을 위한 피켓 시위를 함(강일출 편, p.87)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증언하는 것이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도 함(강일출 편, pp.149-151) -일본이란 국가가 행한 폭력의 산 증거인 나를 보면서,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람(김복동 편, p.191) -먼저 별이 된 피해 할머니들의 몫까지 합쳐 UN 본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함(이옥선 편, p.103) -일본군의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의된 기림비(이용수편, pp.105-107)

2) 주제 영역 내용 기술

(1) 일본군 '위안부'로부터 벗어난 삶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짐승 같은 성노예의 삶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면서 벗어날 수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고국 땅을 밟게 된다. 이로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삶을 가까스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본 군인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성적 폭력의 비참한 배설구가 되어야 했던 그 시기의 끔찍한 악몽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거나 위로 받을 수도 없이 숨기기 급급한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 같았던 피해자로서 삶의 상처와 한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인생이란 시간이 만들어 낸 또 다른 인생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것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실패한 결혼생활'과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으로 의미부여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연 많은 인생에서 그녀들이 나름대로 '살 이유가 된 소소한 행복도 존재'했다고 의미부여 하였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지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자신들의 겪어 내야 했던 엄청난 인권유린의 참상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털어놓은 엄청난 비밀'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① 실패한 결혼 생활

분석 대상 여성 노인들은 뼈아픈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이다. 이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20대를 훌쩍 넘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결혼이었다. 이로 인해 분석 대상 여성 노인들은 주변인들의 권유와 술집을 전전해야 하는 자신의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이 모두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은 남편의 배신을 뒤로 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을 감행하게 된다. 또한, 한 여성 노인은 전쟁에 나간 남편을 10년의 세월 동안 시댁 가족을 부양하며 기다렸지만, 다른 여자와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는 첫 남편의 배신으로 결혼이 파탄 나기도 하였다.

“중국인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인물이 좋아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고 꼬드겼을까? 난 아직도 남편이 왜 배신을 했는지 잘 납득이 안 돼...(중략)...배신감에 치를 떨고 이혼을 결심했지...(중략)...큰 딸과 아들 양손을 잡고, 첫머이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새로 마련한 살림집으로 가는데, 눈물도 안 나와. 앞으로 애비없이 자식들을 어찌 키울꼬! [27]”

“10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 온 소식은 참담했어.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버젓이 살아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던 거지. 시삼촌이 연길시내 극장에서 남편을 딱 만난거지...(중략)... 남편이 자기 집으로 시삼촌을 모시고 갔는데, 시삼촌이 가서 보니 장가가서 부인과 있고, 딸을 셋이나 낳고 살고 있더라. ”어떻게 된 거야? 네 집에서는 지금도 네 색시가 시부모 봉양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연락 한 번 않고...” 남편은 깜짝 놀라며, ”옥선이가 아직도 있어요? 난 진즉에 가버린 줄 알았어요 [29].“

②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세상을 살아온 여성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자신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으로 의미부여 하고 있다. 이러한 인생살이는 생계를 위해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하면서 살아야 했던 인생으로 의미부여 되고 있다. 또한 한 여성 노인의 경우, 전쟁에 참전해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 봉양과 시동생들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으로 한 세월을

보냈다고 구술하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시집가게 소원이었는데, 들어드리지 못했어. 이 몸으로 시집을 어떻게 가나? 대구 오명집 종업원으로, 포장마차 하면서 혼자 몸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어[31].”

“남편 집안 삼형제가 모두 참군(군에 입대했다는 의미)했었지.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하지. 시댁이 엄청 못 살어. 남편 없이 10년간 혼자서 시댁을 돌봤어...(중략)...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직 어렸던 나는 도문에 있는 고무공장에 나가 일하다 손가락이 비틀어졌어. 고무가 독하거든, 또 농사도 짓고, 동네 품앗이며, 산에 나무 주우러 다니고 봄에는 나물 캐고...[29].”

③ 살 이유가 된 소소한 행복도 존재

분석 대상 여성 노인들은 ‘위안부’ 생활로부터 벗어나 살아내 온 험로와 같은 자신의 인생이 모두 불행한 삶으로 점철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의미부여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기도 하고, 질곡 같은 삶에 단비가 되어준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도 구술하고 있다. 이들이 드러내는 ‘살 이유가 되어준 소소한 행복’에는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자신의 똑똑한 능력 덕분에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여러 일을 겸직했던 여성 노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녀들의 인생에 커다란 선물이 되어준 양아들 혹은 입양아들이 준 행복감 등을 말하고 있다.

“결혼하고 중국 팔도진에 살았는데, 해방되고 난 후여서 세상이 어수선했어. 그 당시 많은 조직이 생길 때였는데, 일 많이 했어. 조선말, 일본말, 중국말 3개 국어를 할 줄 알고, 귀한 책을 늘 가까이 했거든. 여자들 중에 나만큼 똑똑한 이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 청년단위 조장도 하고, 부녀주임도 했어. 여러 일을 겸직한 거야[29].”

“아기 엄마가 벽을 바라보고 돌아 누워있는데, 얼마나 애잔한지. “아기 엄마, 밥 한술 떠요.”...(중략)...“아기를 키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잘 키우겠어요. 공부도 많이 대학까지 보낼게요.” 아기 엄마는 고개를 끄덕끄덕.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와 옥이야 금이야 키웠네.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울다가도 내가 안아주

면 내 눈을 맞추며 방긋방긋, 천하를 얻은 것 같았지. 아기를 못 낳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하나 귀한 선물..[32].”

④ 수십 년이 지나서야 털어놓은 엄청난 비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쉽지 않았던 아픈 기억들을 수십 년이 지난 1990년 대 초반 털어놓게 된다. 이들은 어느 날 우연히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TV로 보게 된다. 이로인해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 여성 노인은 이것을 여동생과 상의하였지만, 그녀의 여동생은 오히려 ‘위안부’였다는 것을 세상에 밝히는 것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 여성 노인이 이 사실을 밝힐 경우, 조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 노인은 자신이 짐승보다 못한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7년의 세월을 도저히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위안부’ 피해 여성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밝히게 된다. 또 다른 여성 노인은 ‘위안부’ 관련한 TV 방송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그녀를 자꾸 캐 묻는 눈치 빠른 며느리로 인해, 수십 년간 숨겨왔던 아픈 기억과 상처들 모두를 자식에게 털어놓게 된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 한 사람 있으면, 신고를 하래. 비밀을 지켜준다고. 그때가 1992년 1월 17일이야. 나는 동생한테 의논했더니 조카들 창피하다고 신고하지 말래. 하지만 나의 7년을 밀림에서 짐승처럼 학대당한 7년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어서 신고했지. 그때부터 동생과 조카들이랑 연락을 끊었어. 아직까지 연락을 안해[30].”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위안부’ 보상금을 적게 주네, 마네 하는 거야. 옛날 생각이 나서 언짢아, 나도 모르게 혼자 말을 했어. “정작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진짜 쉬쉬하고 부끄러워 고개도 못드는데, 저렇게 엉뚱한 사람은 저란다”고. 거실에 같이 텔레비전 보던 똑똑한 며느리가 안색이 변하며, ...(중략)...따져 묻는 거야. 정색한 며느리한테 못 당해. 옛날이야기를 하지, 둘이서 손잡고 눈물 많이 뺐지. 서재에 있던 아들이 두 여자의 통곡 소리에 깜작 놀라 나왔어. 연유를 듣고 이젠 셋이서 울었네....(중략)...어미의 과거를 부끄러워 하지 않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우네[32].”

(2) 인생 말년에 시작한 여성인권가로서의 삶

여성 노인들은 그녀들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임을 세상에 밝힌 후, 인생 말년의 시기에 자연스럽게 여성인권가의 삶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여성 인권가의 삶 안에서 이들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 속에서 이들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던 심적 고통들을 '말년이 되어서야 들어선 치유의 길'로 의미부여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과 같은 비극적 상황에 내몰린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세계 여성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활동가의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 경로 안에서 여성 노인들은 '의로운 기부자의 삶', '후세대와의 교류와 공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한 이들은 평생 사는데 급급하기만 했던 자신의 한 많은 인생에서 그녀들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가는 '말년에 이루어낸 인생 보람'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 시 하에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성폭력과 목숨을 위협하는 극단적 폭력 상황의 고통들을 견뎌온 이들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반복되는 트라우마의 상흔'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여성 노인들은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반드시 일본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것을 '해야만 될 내 인생의 숙업'으로 그녀들이 '인생 말년에 시작한 여성인권가로서의 삶'을 이해하였다.

①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

여성 노인들은 일제 치하 불행한 시대에 강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란 성노예의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시대 우리나라 여성들은 수백년동안 더욱 견고하게 이어져 온 유교적 가부장주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아온 여성이기도 하다. 특히 미혼 여성의 순결성, 방정한 품행을 강조하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이들의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성노예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아서는 안 되는 치욕스러운 삶의 경험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스스로를 수치스러워 하는 치욕감과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삶을 자신의

잘못 혹은 잘못 산 탓이라는 자책감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로 이해하며 살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여성 인권에 눈뜨게 되면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자각적 의미 안에는 강압과 폭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으로 만든 일본이란 나라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이 여성 노인들은 나라의 국력이 너무도 약했기에 자신들과 같은 힘없는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야 했던 불행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위안부'가 아니라. 강제야, 강제가 되어야 하는가? 부끄럽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지.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본이 부끄러운 거지[25]”

“평화의 우리집에 기거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네.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가해자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신고하지 않고 끄꿍 숨어, 눈을 감을 때까지 얼룩진 내 몸을 씻으며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늙은 몸이라도 필요하면 달려가네[32]”

② 말년이 되어서야 들어선 치유의 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수십 년을 숨기며 살아온 오래된 과거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온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것을 밝히면서부터 여성인권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해 왔는지에 대해 눈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폭력의 피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계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길을 도와준 좋은 멘토를 만난 것을 인생의 귀한 선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권이란 새로운 인생의 선물을 자신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그림그리기 활동 및 꽃과 작은 나무 등을 가꾸는 원예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가시와 같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 교수님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UN인권대회에 갔제...(중략)... ○교수님은 나의 증언을 꼼꼼하게 들

어주고, 보충해 주고, 위로해 준 고마운 분이제. 여성 인권에 눈을 뜨게도 해 주셨지. 그 전에는 다 내 잘못인줄 알았지...(중략)... 나의 입을 열게 하고, 더 큰 세상을 보게 하는 큰 눈을 주고, 더 잘 들을 수 있는 큰 귀도 선물했제[30]"

“매주 선상님이 오셔서 우리 할머니들을 가르치는데,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화분에 꽃 심고, 나무 심고 흙으로 살살 덮고... 조금만 기다리면 잎이 나고 이쁜 꽃도 보여줘...(중략)...들판에 자라나는 한 떨기 꽃도 소중하고 귀하거늘... 작은 꽃이나 식물도 이렇게 정성 들여 가꾸는데, 일본 군인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했나? 안했지!...(중략)... 죽은 석상같이 주는 밥 먹고 하루에 수십 번씩 강간당했네. 폭행과 욕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야. 가슴에 들어있는 돌덩이가, 꽃혀 있는 일본 군검이 이거 들여다 보고 있으면 좀 살살 덜 아파[32]"

③ 세계 여성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활동가의 삶

분석대상 여성 노인들은 노구의 몸이지만, 스스로 전쟁 지역,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은 물론, 목숨을 위협받는 각종 위험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기꺼이 인권활동가로서의 삶에 적극 뛰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비극을 겪은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계여성의 인권보호와 세계평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게 된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요청하기도 한다.

“라즈미아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집을 뺏긴 팔레스타인 여성이야.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민가에 들어가 민간인을 죽이고 강간했대. 라즈미아도 당했다는 거야. 말이 되나? 민간인을!...(중략)...그런데 미국 FBI가 감옥에 넣었대.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에서 감옥생활을 했다고. 라즈미아는 내 증언을 들으며 흐느끼고, 나는 그녀의 울음을, 아픔을 달랬어. 라즈미아는 나와 같이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어...(이하 중략)[30]"

““문대통령님 당선 후 2번이나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 이후로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한스러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밝혀주시니 고마워 펄펄 울었습니다. 국민이 피해자 가족인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하고 나도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31].”

④ 의로운 기부자의 삶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인권활동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 그리고 아동,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로운 기부자의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로운 기부자’의 삶은 평생 모은 쌈지돈 5,000만 원을 기부하며,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각종 폭력과 빈곤,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돕기 위한 나비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조성된 나비기금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 동안 모은 쌈지돈 5,000만원을 나비기금에 기부했제. 위부자들은 5,000만원이 적은 돈이겠지만, 난 평생 모은 돈이지, 남이 어려운 것, 불쌍한 것을 잘못 보는 성미야...(중략)...분쟁 지역 피해 어린이와 평화활동가 양성에 써 달라고 나비기금 낸 기라. 많은 나비들이 전 세계를 날며 나 같은 전시 피해자들에게 도움 주길 희망하네[30].”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만든 나비기금이 세계로 날개짓하여, 성폭력에 시달리는 세계 여성에게 날아가길 희망하네. 나의 나비가 더 멀리 높게 날기를 기도하네...(중략)...베를린에 사는 아프리카 난민을 만나 위로하고 1,000유로의 나비성금을 전달했어[32].”

⑤ 후세대와의 교류와 공감

여성인권가 활동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전 세계 여러 대학을 방문하여 그녀들이 짐승 처럼 당해야 했던 인권유린의 참상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인권유린이 일본이란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이루어지는 수요 집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엄청난 피해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함께 탄식하고 공감해 주는 후세대와의 교류의 장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비극적 삶을 영화화한 ‘귀향’이란 영화를 보며 슬퍼하고 탄식하는 후세대에게 보편적인 인류애를 느끼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젊은 대학생들의 성공과 재능 기부로 만들어낸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귀향은 뉴저지에서 상영되어 큰 충격과 감동을 주며 대단한 호평을 받았지. 영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어. 영화를 보면서 여기저기서 한탄의 한숨 소리와 훌쩍거림이 들리는 것은 피부색과 눈동자 색깔은 달라도 느낌은 다 같은 인류애! [27]”

“2017년 12월 21일 대구대학교 교정에 내 소녀상이 설치된다고 꼭 오라고. 학생들이 용돈을 털어 모금해서 세운 뜻있는 소녀상이라는 거야. 한국에서 대학교 캠퍼스에 세워지는 최초의 소녀상이지...(중략)... 학생들 용돈 한 푼 모으고, 서용준 조각가의 재능 기부와 소녀상에 청동으로 옷을 입혀준 주물공장 유광선 대표 등의 뜻깊은 참여로 탄생한 어여쁜 소녀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31].”

⑥ 말년에 이루어낸 인생 보람

분석 대상 여성 노인들은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가는 노로의 시기에 축복과 같은 인생의 보람을 일구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인생의 보람은 힘겨웠던 과거의 삶 속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아실현의 모습에서 의미부여 하게 된다. 이들의 자아실현의 모습은 자신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책이 출간되는 큰 기쁨을 맛보면서, 이것을 인생 말년에 자신에게 주어진 보람과 기쁨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슴 속 한 구석에 깊이 묻어두었던 소녀 시절 가수의 꿈인 음반을 내면서, 실제로 가수로 데뷔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한 많은 삶을 살았지만,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에게 우리 사회가 수여한 여성상을 가치 있는 상을 받은 큰 기쁨으로 이해하였다.

“나는 참 상복도 많은 늙은이여...(중략)... 2015년 7월 11일에 받은 '서울시 여성대상' 인가라. 목에 매달 걸고 찍은 사진 봐라! 멋지지 않나? 다른 상보다 여성상은 뽀스레 기쁘고 떨린다. 자식 한명 없는 내가 우리 한국의 모든 어무이가 되고, 할매가 되어 귀감을 받을 만 하다니,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 상은 비단 나 뿐만 아니라, 우리 피해자 모두에게 주는 상이며...(이하

중략)[30]”

“나이 89살에 가수로 데뷔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게 바로 나 길원옥이야! 원래 흥이 많아 평소엔 흥얼거리며 노래를 달고 다니니까, ○○○ 대표가 어릴 적의 소원이었던 가수로 데뷔하라는 거야. 할매! 젊었을 적 꿈이 뭐였어요? 그야 노래하는 가수지!...(중략)... 그냥 웃어 넘기려는데, 8월 삼복더위에 노래를 녹음하고 음반이 나왔네[32].”

⑦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반복되는 트라우마의 상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인생 말년에 만난 여성 인권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변신시키면서, 가슴에 표표히 박혀 있는 깊은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간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후세대와의 교류와 공감 그리고 전 세계 내 보호받지 못한 분쟁지역 여성과 아이들이 처해 있는 인권침해 상황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는 노익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분석 대상 여성 노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급작스럽게 덮쳐오는 차마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적 상처들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그들이 증언을 위해 밟은 일본 땅에서 수십 년 전에 겪었던 학대 경험들이 되살아나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경험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린 후배 세대들이 준비해온 붉은 카네이션과 일본 군도에 의해 찢겨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붉은 피가 겹쳐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구토를 와락 해버리는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분석 대상 여성 노인들은 수십 년 전 과거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힘든 기억들은 그녀들의 뇌리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조그만 징후에도 부지불식간에 급습해 오는 트라우마적 현상들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2004년부터 일본의 주요 도시에 증언을 하고 다녔자...(중략)...일본 여성단체 여자들은 연신 “죄송합니다!”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일본 군대가 잘못된 일을 우리에게 대신 사죄하는 거야...(중략)...일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야! 일본 군대가 한 짓이지... 첫날 호텔에서 온천도 하고 몸은 편한데, 쿵쿵 내 심장소리가 계속 들려. 밤에 일본 군인을 만나는 악몽을 꾸고. 아! 꿈에 위안소도 보이네. 꿈속에서 엉엉 우는 열 여섯살 옥선이 가

있어[29].

“그날은 이들 뒤의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집회여서 붉은 카네이션을 학생들이 우리 할매들 가슴에 달아주는데, 그 붉은 색이 일본 군인들의 군검에 찢린 우리들의 몸에 새겨진 빨간 상처로 되살아나 꿈틀거리는 통해 그만 구토를 하고 말았네[32].”

⑧ 해야만 될 내 인생의 숙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낸 것은 일본이란 나라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힌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어떠한 사과나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들을 드러내게 된다. 이 속에서 이들은 먼저 저 하늘의 별이 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몫까지 대신하여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자신들이 죽기 전 꼭 성취해야 할 숙업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UN 본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자신들이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증언하러 다녀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살아있는 증거인 자신들이 일본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립비 설립이 해당 국가에 의결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를 봐! 아직까지 벌겋고 울퉁불퉁 하잖아! 아직도 비가 올라치면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쑤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갑자기 멎고 코피가 주르륵 흘러서 옷에 묻고 그래서 한쪽 코에 휴지로 노상 막고 있었어...(중략)...내가 피눈물이 나. 내가 중국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것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야. 내가 말(증언) 안하면 누가 할끼고?[27]

“피해자가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해결이 안되어 외국까지 와서 늙은 몸을 이끌고 시위하는데 참담한 심정이야. 마침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 반기문 총장이잖아.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는 글을 써서 들었지...(중략)...진지한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 낯선 이국 땅에서 피켓을 든 내 모습을 하늘 나라에 먼저간 할매들 보고 있나?(...이하 중략)[29]?”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5명의 삶의 영역을 Elo와 Kygäs(2008)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의 여성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은 이들을 평생 짓눌러 왔던 트라우마적인 상처에 대한 자기 치유효과 기제로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이 여성인권에 눈뜨게 되면서 자신들이 피해자였다는 것과 이러한 피해가 일본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이상 일본의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장기간의 집회 참여와 세계 각국에서의 증언 활동을 통한 꾸준한 인권활동가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여성인권 활동가의 삶이 이들의 상처를 보람과 기쁨으로 전환 시키는 자기치유 효과로 발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연구의 시사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후세대들의 깊은 공감과 지지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긍정적 의미 부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에 의해 각종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던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자신들의 사재를 내놓는 등 큰 기부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 더불어 자신들의 기구했던 삶을 영화나 책으로 발간하거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위안부’ 여성 노인들을 대표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수여받은 상을 자랑스러워하는 의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인권활동가로서의 참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 또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자각

과 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 참여가 자기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회복(resilience)의 의미는 심신의 역기능을 이겨내는 특성과 상태만이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에 잠재해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활용하여 외상의 극복과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역동적인 과정[33]”으로 정의되고 있다. 위 시각에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이 여성 인권활동가의 삶 속에서 경험한 자기 치유도 일종의 회복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극악한 성폭력 희생자인 이들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본군 성노예로 살아온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자기치유 효과를 통해 외상 후 성장도 하지만, 동시에 최소 50-60년전에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외상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외상 후 성장은 성장경험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퇴행적 경험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이 자신을 짓밟은 일본이란 나라의 땅을 밟으면서, 악몽을 꾸거나 자신이 겪었던 참혹한 일들이 떠오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붉은 피를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달아주는 붉은 카네이션을 보고 연상하면서, 구토 증상을 보이는 트라우마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이 피해로 인한 잠복 매독, 신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편집증 및 분노와 화병으로 인한 대인 기피증을 호소하고 있다[34]”고 제시한 기존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김정화[35]의 연구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현재 삶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고, 과거 삶의 굴곡이 현재 삶의 질을 표현하는 주된 영향”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등과 같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체계적으로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논의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의 외상 회복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에는 공동체적 서비스와 사회복지기관 내 서비스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Cohen[36]은 국가와 사회가 인권침해에 눈을 감거나 부인하는 순간 국가와 사회는 외상을 발생시키는 일부분이 되며, 일종의 ‘공모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적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은 곧 ‘힘없는 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적 노력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여성 노인들의 외상 후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노력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의 외상 후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좀 더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스스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통제할 수 없었던 무력한 상황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참사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 참상이 일본군 ‘위안부’ 여성 노인의 성격과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 유린 상황을 이해하면서 변화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외상의 회복과 성장은 곧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상호 순환적으로 연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은 국내외의 수많은 집회 활동과 증언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임파워먼트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자기 임파워먼트한 것으로 유추되어진다. 기존 선행연구[37]에서는 폭력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외상을 극복하고 심리·사회적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처 입었던 자신을 애도하며 타인 및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여성 노인들이

자기 치유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자기 임파워먼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 연구의 제언 방안은 생존해 있는 소수의 일본군 '위안부' 여성 노인 및 유사한 국가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외상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 등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치유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유센터로서, 2012년 보건복지부 및 광주광역시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출범한 바 있다[38]. 또한 2019년에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총괄할 수 있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39]. 이처럼 우리 사회는 국가폭력으로 인해 심리사회적으로 고통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치유를 위한 개입 노력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트라우마 치유는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과 같은 국가폭력 희생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여성 노인들은 일본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그 폭력으로 발생한 트라우마적 고통이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39]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외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치유센터 설립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적 위험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국민 누구라도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에서 예외될 수 없다. 이것은 꼭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위험과 재난 속에서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차원의 외상 회복과 치유를 돕는 치유센터 설립이 더욱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조명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이 주로 일본군 '위안부'로서 피해를 당했던 삶을 조명하는데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들이 인권에 눈뜨게 된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을 조명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이 여성 노인들의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연구의 경우,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초기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여성 노인의 인생 후반의 삶인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김문자의 2022년 2월 예명대학원대학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노인의 생애 경험에 관한 연구"란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투고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등지원위원회, *들리나요? : 열두소녀의 이야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 2013.
- [2]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법학*, 제45권, pp.81-112, 2011.
- [3] 박정애, "열정과 냉정 사이: 일본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만나는 방법," 이시카와 이쓰코 지음, 손지연 옮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 삼천리, 여성문학연구, 제33권, pp.493-516, 2014.
- [4] 김수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론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5]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6] 최현실, "생애사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기억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pp.75-101, 2010.
- [7] 강혁민, "내러티브 이론으로 보는 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자전적 내러티브와 고통의 의미생성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pp.1-30, 2020.
- [8] 손행미, "질적내용분석의 이해와 적용," *대한질적연구학회지*, 제17권, pp.56-63, 2017.
- [9]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

- 원, 2016.
- [10] 강정숙, “역사용어 바로 쓰기: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역사비평, 제2권, pp.315-320, 2006.
- [11] 김정일, 강정숙, 송연옥, 손염홍, 신영숙, 정현주, *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12] 이정은, “여성 인권과 세계 평화의 관계: 성 평등과 무력 분쟁에 관한 UN ‘1325호 결의안’에 기초하여,” 동서철학연구, 제64권, pp.29-58, 2012.
- [13] 이나영, “경계에서 출발해 경계를 넘어: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초국적 연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9권, 제2호, pp.191-230, 2018.
- [14] 전지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월드비전 해외구호 및 회복 프로그램, 평화·안보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신낙균의원실, 2011.
- [15] 정진성, “전지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제2호, pp.39-61, 2003.
- [16]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pp.61-88, 2015.
- [17] 전윤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1.
- [18] 박기목,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호, 제9권, pp.134-145, 2015.
- [19] R. G. Tedeschi and L. G. Calhoun,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Vol.15, No.1, pp.1-18, 2004.
- [20] 신우정, 임동호, “춤 치유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쉼터거주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pp.158-168, 2018.
- [21] 음영철,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료과정-현기영의「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97-305, 2013.
- [22] 유정, 최남희, “외상후 성장과 내러티브 재구성,”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pp.201-212, 2015.
- [23]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제2권, 제1호, pp.127-155, 2016.
- [24] Satu Elo, Helvi Kyngä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2, No.1, pp.107-115, 2008.
- [25] 최영철, “궁지에 몰린 ‘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손배소송 승소, 형사재판 이어져...박유하 교수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 주간동아, 2016.
- [26] <https://www.nanet.go.kr/main.do>
- [27] 권주리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강일출 : 영화 '귀향'의 모티브*, 북코리아, 2018.
- [2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8.
- [29] 권주리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이옥선 : 만두한 개*, 북코리아, 2018.
- [30] 권주리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복동 : 기부천사*, 북코리아, 2018.
- [31] 권주리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이용수 : 아이 캔 스피크의 주인공*, 북코리아, 2018.
- [32] 권주리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원옥 : 다시 가지 못한 고향 평양*, 북코리아, 2018.
- [33] 이정희, 박선영, “탈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회복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평범한 삶’을 위해 휘둘리지 않고 버텨내기,” 사회복지연구, 제51권, 제1호, pp.107-137, 2020.
- [34] 안신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생애사 연구 : 인권과 복지권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35] 김정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故 박숙이 할머니 생애사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36] S. Cohen, *States of Denial: Knowing About Atrocities and Suffering*, 2001, 조효제 역,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파주: 창작과 비평사, 2009.
- [37] 광주광역시, *광주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활동 성과분석 보고서*, 광주: 광주광역시, 2017.
- [38] 천정배의원실,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방안 공청회*, 서울: 천정배의원실, 2019.
- [39]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정착지원 방향 연구*, 통일부, 2010.

저 자 소 개

김 문 자(Moon-Ja Kim)

정회원



- 2022년 2월 :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질적연구방법

김 학 주(Hak-Ju Kim)

정회원



- 2001년 8월 : 워싱턴대학교 사회복지학대학원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의료복지, 노인복지, 보건경제

임 해 영(Hae-Young Lim)

정회원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 여성, 질적연구방법